



## 2014 프랑스 단기선교

### 선교단장 안테른 강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2013년 초, 코네티컷주에 있는 OMSC를 방문하신 이영길 목사님은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 15년 만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오신 Gilles Anzardy /김은경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자살 시도로 충격에 빠진 둘째 딸 시연, 앞으로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하여야 할지 진로의 고민에 빠진 첫째 딸 시내, 침울한 가정 분위기를 한껏 떠우고자 노력하는 셋째 시창, 천진난만하게 아무 염려 없이 잘 자라주기만 하는 막내 시진이, 이들을 만난 이영길 목사님은 선교사님 부부를 교회로 초청하시어 주일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닿아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그 해 6월의 콜롬비아, 도미니카 선교팀 훈련에 다시 한 번 그분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전하시고 선교팀들의 준비상황들을 보신 후 2014년 프랑스단기 선교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선교지로서는 너무나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프랑스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제발 기억해 달라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4년간 남미,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으로 단기선교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의 길을 보여주심은 무슨 뜻이신지 여쭙게 되었고, 점점 다가오는 확신은 “세계로 향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놓고 해 왔던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과의 만남이 해외 선교위원회를 통한 연결의 고리로 이어졌으며, 의료, 봉사, 미용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제한된 선교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의 어린 Youth Group 학생들을 보내심으로 복음의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Page 3에 계속)

### 9월호 목차

- 2014 프랑스 단기선교
- 습관의 힘
- 사순절 묵상집 발간
- 야외선교위원회의
- 정의평화/홍보위원회의
- 교육3부위원회의
- 집사회
- 선교인어름수양회 보고
- 안수임직 답사
- 국내선교위원회의
- 여성교회/남성교회
- 상록외
- 동북대외여성교회 수양회를 다녀와서
- 탁구동우회
- Ransom중고등부
- 유년.초등 주일학교
- 수필:울릉안 아버지 상
- 아동용 선교사 편지
- NCKPC 중회보고
- 새교우 환영반
- KCB 펠러리



## 습관의 힘

이영길 담임 목사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저는 컴퓨터를 켤 때 의식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이트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therein-forests.com에 들어 갑니다. 열대림을 보호하는 캠페인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초록색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제가 클릭한 것이 카운트 됩니다. 클릭한 숫자들이 모아지면 그만큼 열대림을 보호하는 기금이 생기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아마 스폰서들이 기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클릭만 하면 됩니다. 같은 사이트에 hunger section이 있는데 그 노란 버튼을 누르면 또 기아대책 기금으로 넘어 가게 됩니다.

일년이 지나면 1년 동안 전 세계인중 몇 명 클릭을 했고 그 결과 얼마나 넓은 열대림이 보존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서 해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별거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면 꽤 많은 일을 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습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한 것도 없지만 언젠가 기대 이상의 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올해 만든 좋은 습관은 무엇인지요? 아직 없으시면 가을을 맞이하여 올해가 가기 전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은 좋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 일 줄 압니다.

## 사순절 묵상집 발간을 위하여...

홍보위원회의

“매년 사순절이 되면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손수 쓰신 글과 기도문으로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 왔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 사순절 묵상집을 마련하여 온 교우님들과 함께 읽으며 아름다운 사순절을 맞고자 합니다.

상을 위한 성서 한 귀절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에는 한 줄로 된 기도문로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김한나 권사 (781-741-2722)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 (2015년 2월 15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은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와 용서, 절제와 금식, 화해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닦으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글 보내실 곳: E-mail: hannakcho@yahoo.com  
또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  
마감 날짜: 2014년 11월 30일(주일)

교우님이 나누어 주시는 묵상의 글은 이 사순절 기간에 귀한 은혜를 온 교우가 함께 누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식은 기도문, 묵상을 위한 에세이, 기도시 등이며, 분량은 1페이지 정도 (작은 사이즈 책자로 만들 예정입니다)로 쓰시면 됩니다. 제목과 더불어 사순절 기간 묵



# 해외선교위원회

## 위원장 안성환 장로

1. 2014년 단기선교
  - a. 프랑스 선교: 6월 17일-7월 8일, 10명 단원이 노방전도, Performance, 선교대회 참석, 현지 선교사님 지원 등
  - b. 도미니카공화국 선교: 7월 26일 - 8월 2일, 25명 단원, 의료 및 치과사역, 여름성경학교 약품포장 - 7월 19일 (토)  
파송예배: 7월 13일 스페니쉬교회 파송예배, 7월 20일 보스톤한인교회 파송예배
  - c. 니카라과 선교: 8월 15일 - 8월 21일, Pena 목사 외 4명
    - i. Pastor Pena, Carlina Velasquez family
    - ii. 현지 교역자 세미나 (매일 85명), 부부 세미나를 진행 (30 가정)
2. 선교 평가회: 9월 5일 (토) 오전 10시
  - 도미니카공화국: 올해 (2014년)는 메디컬, 치과, 교육팀을 구성하여 2015년도에도 도미니카공화국 선교를 실시하기로 함. 의료 사역자가 아닌 일반교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봉사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지 모색. 예를 들어 Grace Church 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테말라 봉사 선교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 유럽 선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교회의 선교 원칙대로 3년 동안 (2016년까지) 프랑스 선교를 하기로 결정. 교육 1, 2부와 다른부서에도 Open하여 많은 교인들께 프랑스 선교 기회제공.
  - 니카라과

### (Page 1에서 계속)

모슬렘이 창궐하는 프랑스, 기독교인은 1.7% 미만의 미전도 종족 수준의 암울함, 적그리스도와 점술가들의 본거지인 리옹, 위험한 아랍상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으며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뒤셰르 장터가 있는 그곳. 그러나 예루살렘처럼 프랑스 리옹이 기도와 예배의 땅이 될 것을 확신하며 세워진 선교센터에 우리의 단기 선교팀이 도착하였습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해지면 개도 짚는데 하물며 주의 진리가 공격 당할 때 조용히 있는 것은 비겁자의 행동이다” 라는 프랑스의 장로교 창시자 켈빈의 충고를 마음에 새기며 리옹, 몽펠리에, 파리, 그리고 유럽 전도대회가 열릴 보베의 거리에 우리의 젊은 믿음의 일꾼들이 나아갑니다.

6월 28일 새벽 7:45분쯤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우리 선교팀을 마중 나온 Anzardi, 김윤기 선교사님의 인도 하에 reformation center에 들러 존 켈빈의 생애와 그의 업적을 살펴본 후 선교센터가 있는 리옹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주일, 3번의 예배에 참여하여 그곳 현지 교

인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월요일부터는 리옹의 길거리로 나가 준비해간 찬양, 부채춤, 워십 댄스를 선보이며 거리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며칠간의 길거리 사역 후 파리 북부 보베에서 열리는 유럽 복음화 전도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다시 리옹으로 돌아와 이웃초청 문화 선교 및 17세기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사막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생활하였던 유적지 탐방 등을 끝으로 모든 단기사역을 마친 후 보스톤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미,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등지에서 폭발적인 개신교 전도의 부흥을 접할 수 있었던 감동과는 달리 프랑스에선 힘든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접하며 1명의 현지교인을 만들기 위해 평균 10년이 소비 된다는 프랑스의 개신교 선교 실태를 접하게 되었고 앞으로 유럽 선교를 위한 점진적, 체계적, 지속적인 선교전략이 필요함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단원: 안 태준, Faith JDSN, Daniel Kim JDSN, Jeremy Kang, Enoch Lee, Yoojin Ahn, Lydia Lee, Angela Park, Lucy Kim, Andy Kim, Steven Ahn.

#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장로

한 아이를 가슴에 품는 사역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캠페션 캠페인은 가난하고 소외되어 미래의 꿈이 보이지 않는 어린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슴에 품는 사역입니다. 한 어린이와 내가 일대일로 결연되어 예수그리스도 중심, 어린이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영적 자람을 계속적으로 도와주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힘이 있어 어린이를 돕는 게 아니고, 한 아이를 향한 좋은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며, 많은 분들이 결연된 어린이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션은 한 어린이를 주안에서 양육하여 미래의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대일 꿈의 해외 선교 사역입니다.

이 캠페션 어린이 양육프로그램은 60여 년 전 한국 전쟁 중 스완슨 목사님이 전쟁 고아들의 참상을 보시고 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하셨는데, 현재 전 세계 24개의 빈곤한 나라에 있는 약 90만명의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3년까지 캠페션의 도움으로 10만여 명이 도움을 받던 나라였으나, 2003년부터는 도움을 주는 후원국 나라로 다시 태어난 유일한 경우가 되어, 한국 캠페션의 경우 2013년 현재 12만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으며, 11개 후원국 국가 중 2위로 부상하였다 합니다.

현재 Compassion International을 통해 미국의 많은 한인교회들이 이 캠페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여 Compassion International의 대표 문영명목사를 모시고 10월 19일을 Compassion Sunday 로 가지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풍족한 미국과 한국사회에 익숙해진 저희들로서는 가난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러 간증과 책을 통하여 보니 아직도 세계 도처에 상상을 불허하는 가난한 나라와 그 곳에서 가난이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받는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남미의 가장 가난하며 아직도 지난번 지진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티(Haiti)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한 어린이를 가슴에 품는 사역에 교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가난과 소외로 고통받고 있는 10억의 어린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 18:5



사랑이 있어 꿈이 자랍니다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합니다





## 홍보 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 홈페이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멀티미디어 팀(유승오 집사, 김상기 집사),  
IT (Information Technology) 팀(유승오 집사,  
이봉욱 집사, 정재원 집사, 방경남 집사, 김진홍 집사)과 윤경문 목사님께서 CP Online Solutions 회사의 “에스켈 2020 차세대 홈페이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옵션을 통해 교회 웹사이트를 새로운 포맷으로 전환하여 우리가 쉽게 내용을 변경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교회 여러 부서와 함께 작업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웹 페이지의 전환작업은 <http://hanuri.cponsolny.com/ministry/> 에 올라와 있습니다.

니다. 각 부서 자료가 업데이트 되면 현재 교회 웹사이트를 새로운 포맷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 교회 네트워크에 급증한 인터넷 접속과 과부하로 마비되는 현상이 잦아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관리위원회 김정선 장로님과 함께 개선책 (Verizon Fios, RCN cable, 혹은 Comcast XFINITY 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 2015년 교회 달력 500부를 조이 캘린더를 통해 주문하였습니다.

## 교육 3부위원회

위원장 권복태 장로

### [소그룹 성경공부반 안내]

매 주일 1 부와 2 부 예배 시간 사이에 실시되고 있는 “소그룹 성경 공부” 는 10 여 명 정도의 소그룹원들이 모여 “말씀과 함께” 라는 교재를 가지고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토의하고 각자의 열린 마음을 통하여 서로 간의 삶도 나누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나눔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함께” 는 크리스천 교육을 위한 세계 성경공과(International Bible Lessons for Christian Teaching)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주/해외한

인교회를 위한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입니다. 현재 10:30부터 시작하는 2개 반, 그리고 10:50부터 시작하는 5개 반이 있고, 이요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강의식 성경공부반도 있으므로 각자가 필요한 시간 및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 말까지 공부하는 ‘말씀과 함께’ (가을 편)는 ‘출애굽기’ 를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인간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사역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쉐마의 밤

지난 5월 쉐마의 밤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어머니들께 드리는 편지 낭송(유년.초등주일학교, 방채원, 정은아, 김문소 장로)과 프랑스 선교님의 특송과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란

제목의 말씀에 이어서 안희진 교우의 특송과 가족, 단기 선교단의 선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해의 반을 훌쩍 넘어 벌써 수확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울타리의 지면을 빌어 올봄과 여름 동안의 집사회 소식을 교우님들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4월 5일에는 2014년도 보스톤한인교회 제직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신입제직들의 소개와 인사 후에, 집사회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 90명이 넘는 제직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오신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역사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인간: 역사의 문제와 청교도 이해”라는 주제로 뉴헤이븐한인교회 김도훈 목사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5월 12일 어머니주일에는 남자 집사님들이 맛난 카레를 만들어서 전 교인을 섬기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재료구입 및 준비, 요리와 serving, 뒷정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 어머니주일 오찬이었습니다. 매년 높아져만 가는 교우님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려면 내년에는 더욱 정성껏 준비해야 하겠다는 부담감도 갖게 하는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5월 24일에는 주일2부예배 후에 Watertown의

Arsenal Park에서 전 교인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작년엔 날씨로 인해 취소되어 2년만에 갖는 야유회라서, 당일 비가 올 수 있다는 일기예보로 준비하는 분들이 전날부터 긴장하셨지만, 좋은 날씨를 주시리란 굳센 믿음(?)으로 밀어부친 결과는 교인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며 여유롭게 초여름의 오후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났습니다.

6월14일에는 교육3부위원회가 주최하고 집사회가 주관하는 신앙강좌가 있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북미교회 부흥이야기” 주제로 이연승 박사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미국 기독교의 부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숙고하게 하는 의미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께서 동역자로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봄과 여름 집사회에서 주관 또는 지원한 행사들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섬겨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회 살림을 이어받으면서 임원 여러분과 다짐했던 일들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집사회가 되도록 교우님들의 기도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 2014년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돌아보며

수양회 준비팀 김동규 집사

지난 8월15일에서 17일에 걸쳐, 154명의 보스톤한인교회 3세대가 필그림 파인 수양관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2박 3일의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결심”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원우 목사님(캘빈 대학교)께서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과 또, 행하신 일들을 하나, 하나 되새겨 주셨습니다. 5번의 주제강의(예배)를 통해 함께 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결심’, ‘믿음의 모습들’이라는 주제강의 제목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이해의 방법들을 살펴보고, 성경 말씀으

로 해석해 보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깊게 생각해 보는 귀한 체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작년엔 이어 강사목사님의 5번의 주제강연 일정 외에도 ‘주께로 가까이’라는 신앙 워크샵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는데, 강사 목사님이신 이원우 목사님과 김건철, 이요한 목사님 세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원우 목사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성경답게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건철 목사님께서서는 '교회 바르게 이해하기'란 주제를 놓고, 성경과 현대 교회의 의미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바른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음성) 바르게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가를 알려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각자 만들어 가는 방법을 배우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여러 교우들은 신앙 워크샵을 통해 '성경'과 '교회',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동안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던 신앙생활에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신앙 워크샵 프로그램에 크게 만족해 하였습니다.

해마다 수양회를 찾는 이유가 가슴이 뻐근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벽찬 감격 때문이라는 한 교우님의 고백처럼, 올해도 토요일 저녁, 전 교인 찬양과 기도의 밤은 뜨거운 고백과 회개, 감사의 기도로 수양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더욱 풍성해진 '배움공동체' 프로그램을 토요일 오후 1시간 30분 동안 원하시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찬양과 발성법(조유미집사), 테니스강습(정재원, 박진욱집사), 골프 잘 치는 법(조준호 장로, 구용한집사), 사진 찍는 기술(김상기집사), 패션(이경자집사)의 강의를 통해 교우님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깊이 있는 조언과 실력향상의 비법을 배우보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교우들은 배움의 시간이 짧다고 못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전문가에게 특별 레슨을 받은 흐뭇함

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운영하였고, 중고등부는 자체 수양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먼저 김수영 전도사님의 4번의 설교와 찬양의 시간을 가졌으며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게임을 가르쳐주고, 놀아주는 즐거운 2박3일을 보냈습니다. 봉사교사로 여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섬기셨으며, 처음으로 수양회와 함께 하신 김수영 전도사님 내외께서는 수양회 기간 내내 어린이들과 함께 하시며 아이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귀한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같이 한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Sunflower 주일학교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4세 이하의 유아들과 부모님들에게도 따로 놀이방 공간을 배정해서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편한 수양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2박3일의 짧은 수양회를 마치고, 짐을 다 챙긴 후 수양회에 처음 오신 교우들을 환영하며 함께 수양회를 돌아보는 조모임의 시간을 가졌는데, 아름다운 자연과 은혜 충만한 말씀,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귀한 만남의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봄부터 준비했던 이번 수양회를 위해 일손을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수고하셨던 분들, 함께 수양회에 자리하셨던 모든 분들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기도 드립니다. 수양회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들과 함께 섬기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 안수집사 답사

김재영 집사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랑하는 연인을 아내로 맞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가정에서 태어난 그 사람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최우선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종교인이었던 터라 큰 결심을 하고 그 사람의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에 생애 처음으로 참석하여 예배를 보았습니다.

마침 그 날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름 수양회를 다녀온 후 간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수양회 중에 말을 다쳤는데 말을 다쳐서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쪽발만 다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게 어떤 마음이며 어떻게 가슴에 담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 사람의 부모님과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는 다짐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다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주일 예배에 나가서 예배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하며 열심히 다녔고 몇 년 후에는 안내위원의 직무도 받아서 교회일도 했지만 직분이 없이도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 교육을 통보 받으면서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직분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분이 주는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느끼면서 한편에서는 내가 과연 직분에 맞는가 하는 우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 과제로 성경 구절 쓰기를 하면서 그 동안 읽고 지나갔던 성경 말씀이 새삼 소중하여지며 인간의 삶의 근본 지침서이고 열

마나 고귀한 말씀인 지깨닫게 되어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 갔습니다.

과연 나는 그 동안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되돌아 봐지고 앞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소중함과 늘 마음 속에 담아두어야 할 말씀이라고 알게 해 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미국 장로 교단의 운영체제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교회의 조직과 제직자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 주셔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소홀했음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를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 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다짐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미약한 저에게 직분자 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 국내선교위원회

### Oasis Cafe Music Night :

10/25일(토) 오후 7시- Jewish Klezmer Group 부르클라인 지역주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Oasis Café music night에서는 10월 25일 부르클라인 지역에 거주하는 Jewish Klezmer group을 초청합니다. Community Center에서 Jewish 전통 음악과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곡이 선사될 예정인데, 이 행사에 오시는 분들 모두가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댄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LINK(Liberty In North Korea) 초청:

11/1(토) 오후 5시

탈북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돕고 있는 LINK에서 올 가을 동부지역에 Jangmadang Tour를 가집니다. 탈북한 분들이 직접 북한에서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비디오로 들려주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탈북자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11월 1일에는 청년 2부와 베다니 회중이 합동으로 이 행사를 초청하여 마련합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안수장으로 답사

이정민 강로

부족한 이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라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 신앙고백의 일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흔히 알고 계시듯 모태 신앙인입니다. 저희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4대째 기독교인 집안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태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일가친척 중에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많이계십니다. 그 분들의 삶은 자신의 개인 생활이 거의 없을 정도였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에 헌신과 봉사를 다 하셨습니다.

신앙인으로는 자랑거리오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겠지만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도 아니 얼마 전 까지도 자랑거리가 아닌 부담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저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내 개인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 예수쟁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 하였습니다.

그 후로 교회에서 직책이나 중책을 맡지 않으려고 한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면서 여러 지역을 거쳐 Boston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얼마나 뻔하게 표시가 낮으면 친지들 중에서 저에게 “미꾸라지” 라는 애칭까지 지어 주셨을까요? 보스톤 한인 교회에 와서도 “대충”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가책 때문에 가끔 봉사 또는 헌신 하는 척 하는 교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때는 찾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저의 자존심과 교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위로도 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과 소망과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직책을 맡기실 때 일반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준비 되어 있는 자를 선택 하시지만 준비 되어 있지 않은 자도 하나님의 사역과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 헌신, 봉사 하라고 택하시기도 한다” 고...저는 바로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올해 저희 교회 표어와 같이 “그 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정민의 자아는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묻어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다니거나 외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자아가 꿈틀거릴 것이고 “미꾸라지” 습성이 튀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저를 감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식구와 친지들께서도 기뻐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계시는 아버님과 연로 하셔서 막내 아들의 안수 예배에 참석 못하는 저희 어머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막내가 “미꾸라지” 생활을 벗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사임직 답사

김안나 권사



권사라는 직분은 외국 교회에는 없고 한국 교회에만 있습니다. 권사의 책임 내지 사명이 무엇인지 Googling해 보았습니다.

권사의 역할 또는 직무는 첫째, 교역자를 잘 도와야 합니다. Hard time을 주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둘째, 심방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심방을 통해 교인

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과 고통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랑의 귀를 가지라고 합니다. 셋째, 권위를 잘 하라고 합니다. 권위란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며 잘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권사님상”의 본은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인상의 그런 권사님은 아니셨고, 성격으로는 여장부 타입의 한 성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말없이 외출하고 돌아 오시면 교인을 심방을 하고 오시는 것이었고, 집에 계실 때는 늘 부지런히 음식을 만드시거나 기발한 물건을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돌보기를 끼시고 성경책을 열심히 소리 내어 읽으시던 모습도 생생합니다. 열자 조용히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꼭 소리 내어 읽으셨는데 전형적인 시조 읊듯 읽으셨지요. 아마도 손주들에게 들려주리며 성경말씀 한 자라도 얻어 들으라고 그러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외할머니께서는 힘든 시대에 태어나시어 학교도 다니시지 못하시고 언문조차 배우지 못하셨지만, 교회를 다니시며 성경말씀을 접하고 나서,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글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성경책이 교과서가 되었던 것이죠. 가끔 할머니께서 편지 쓰신 걸 보면 저희는 틀린 글자와 문장을 읽고 깔깔 웃으며 할머니를 놀리기도 했었죠. 나중에야 독학으로 한글을 깨치시고, 성경책에 수없이 등장하는 힘든 한문도 공부하셨다는

것에 감동과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도 때를 얻든 못얻든 늘 열심으로 하셨는데, 할머니의 기도 덕에 저의 어머니와 저까지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대째 권사의 직분을 이어가는 것이 되었네요.

미국에 와서 제가 마음에 본으로 삼고 있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김남수 권사님과 성덕춘 권사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늘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다니셨고, 인사를 드리면 늘 ‘감사합니다~’ 하며 두 손을 꼬옥 잡아 주시며 인사를 받으셨죠. 처음에는 제가 해 드린 것이 없는데 무엇이 감사하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일상이 늘 감사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도 언제나 저렇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권사가 되면 저렇게 저절로 될까?’, 또는 ‘그 경지가 되어야 권사가 될 수 있을까?’ 등의 물음표는 나에게 하나의 꽃대를 세우게 해주었습니다. ‘늘 감사하며, 늘 칭찬하며, 늘 격려하는 인자한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자고...’

교회 밖에서 여선교회 일을 하며 동역하는 다른 모습의 권사, 여장로님들 중에 저의 mentor가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닌, 넓은 지경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멎지만 이제 한 걸음씩, ‘푸근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권위자가 되고자 합니다. 아직은 미흡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도우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인내로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점점 성숙해져가는 모습으로 신앙의 mentor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성경 귀절 하나를 소개하며 끝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 마리아 여선교회

### 외방 김양인 집사

눈을 뜨면 “오늘” 이 우리들에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주어지는 “오늘” 은 우리들의 일상이지만, “오늘” 을 또 주심에 감사가 넘치는 매일 매일의 아침입니다. 특히, 매 주일 가장 먼저 교회에 도착하여 커피와 함께 1부 다과를 준비하는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분들로 인하여, 교회는 새로운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커피 냄새를 맡으시며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시겠지요! 그리고 예배 후 성도님들과 따뜻한 커피, 다과를 함께 하시며 즐겁게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겠지요. 매 주마다 늘 차려진 다과이지만 새벽부터 바쁘게 준비한 손길이 있어서 더 감사한 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절에는 달걀을 300개나 삶아 주셔서 더욱 기쁘고 감사한 부활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리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에스

더와 더불어 보스톤 한인교회의 막강 부엌 파워인 마리아여선교회는 4월에 청년부 식사를 준비하였고, 7월에는 해외선교부에서 단기선교를 위한 약품 포장할 때 점심을 준비하여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청년부 식사 대접과, 외부의 손님으로 커네디컷 교회연합노인회 분들이 보스톤 관광오실 때 그분들을 위한 저녁식사 대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4월 11일부터 12일에 뉴욕 Stony Point에서 열린 한미동북대회연합수련회에 김홍희 권사님, 김한나 집사님, 이경자 집사님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소원합니다.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님들께 우리 좋으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선교회

### 외방 이문영 집사

5월3일 해외선교기금마련 골프대회를 아름다운 날씨 속에 가장 많은 29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분들과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후원금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 \$3000 불을 해외선교기금으로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신앙 생활을 해 오셨던 차주혁 집사님께서 직장 관계로 뉴욕으로 이주하셨습니다.

9월13일 장학기금 마련골프대회에 비가 올까 걱정을 했는데, 좋은 날씨에 20여 명의 참석자와 즐거운 행사를 마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장학금은 청년 1부, 청년 2부, Brookline High School 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상록회

### 외방 장연숙 권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3:16)

1999년에 설립된 보스톤한인교회 상록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매사 형통케 하시고 일취월장 하도록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상록회 회원님들은 매달 마지막 주일 1부예배후 Community Hall에 모여 본 교회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고통 받고 있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교우님들의 영적 향상을 위하여 저희 회원 전원

이 통성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은 육은 비록 약하나 영은 강건하여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기도를 드릴 수 있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통성기도 후 각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교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건강과 믿음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달 생신을 맞이한 회원님들께 생신을 축하해 드리고 난 후, 경로심이 우리란 교우님들께서 제공하여 주시는 정성 어린 점심을 들고 나면 그날 하루도 천국으로 한걸음 다가 갔음에 환희를 느낍니다.

# 동북대회 여선교회 연합수련회를 다녀오고....

김용의 권사

지난 4월 11일(금),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단순히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떠난 여선교회 수련회였습니다.

빡빡한 일정과 쉴 틈 없는 많은 프로그램에 몸이 지쳐갈 때, 마음 속에 작은 불꽃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선교회에 대한 열정과 후배 지도자 양성을 역설하시는 모습에 나타냈던 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단순히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고 작은 봉사로 크리스천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했던 작은 신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지루해할까 강의 도중 간간이 몸으로 직접 체험응용을 병행하며 모두를 연결시켜 하나로 융화되게 하시는 활기찬 에너지에 즐겁게 동화되었습니다. 평소 낮가림이 심해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절대 남 앞에 나서지 못하던 내가 영겁결에 조 대표로 발표(?)를 하고, 강사님과 짝이 되어 재미있게 강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구경만 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찬양과 예배, 여성 훈련과 조별 모임, 갈등 해결 유형 알아보기, 지도력 개발, 조모임과 발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서의 여인들 찾기, 주부가 알아야 할 안전한 먹거리 등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에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잠자리와 식사도 기대 이상이었고 수련회 장소도 깨끗하고 조용해서 세상의 때가 벗겨지는 듯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높은 친화력으로 모든 사람과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모범을 보이신 이경자 집사님,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수련회를 적극 지원해 주며, 처음 참석한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왕복 9시간 이 넘는 거리를 안전하게 운전해준 김한나 집사님,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신 강사 목사님과 장로님,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울타리를 높게 치고 스스로 갇혀 있다가 겨우 한 걸음 내밀고 큰 즐거움을 맛보니 두 걸음을 내밀면 또 어떤 기쁨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여성 여러분 모두를 이 즐거움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이사야 43:6~7)



## 탁구 동우회

회장 권복태 장로

탁구 동호회는 지난 해 9 월 말의 제 1 회 “창립 60 주년 기념탁구대회” 를 성황리에 가진데 이어 제 2 회 “창립 61 주년 기념탁구대회” 를 10 월 26 일 (일) 에 가지게 됩니다. 지난 해 출전 한 선수는 복식전에 22 개팀, 남자 단식전에 22 명 그리고 여자 단식에 8 명 등 도합 74 명이 출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마음이 되어 멋진 승부를 펼쳤습니다.

그 후로 일 년간 탁구 동호회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함께 모여 연습하며 친교를 나누어 왔으며,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도 복식전은 각 구역이나 기관 혹은 그룹 별로 자유롭게 팀을 만드시면 되고, 가족 혹은 부부팀도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유아부 탁구 놀이” 도 있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 “즐거운 탁구 시간” 에는 초보자도 환영하므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 Ransom 중고등부

황등준 집사

“지난 6월에 해외선교팀 주최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하나 하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중심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전 선교와는 다른, 제3의 나라가 아닌, 잘사는 나라, 아름다움이 넘치는 유럽 프랑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기독교인이 2%도 되지 않는 나라임으로 선교하기에는 쉽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2 주일에는 중고등부 학생 전체가 파송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드렸고, 6/23-24일에는 선교팀원들이 교회에서 1박을 하면서 단합심을 키웠습니다. 프랑스 선교는 6/27-7/8일 동안 갔었고 총 10명이 갔습니다.. 처음에 가는 곳이라 준비하는 과정들이 순조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 선교 팀원명단

어른: Daniel Kim Jdsn, Faith Kim Jdsn, Jeremy Kahng, and Enoch Lee

학생: Andy Kim, Steven Ahn, Lydia Yu, Yoojin Ahn, Lucy Kim, and Angela Park.

7월 2일 주일에는 프랑스 선교 프레젠테이션을 김수제 전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7월 12일에는 여학생 그룹이 교회에서 1박을 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학생 모임을 시작한지 6개월이 되고, 남학생들도 지난 7/26부터 남학생 그룹을 만들어서 여섯 명의 남학생들이 모여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매달 한번씩 토요일에 모여서 저녁을 먹고, 좋은 교제를 나누며, 기도의 시간으로 두 전도사님께서 잘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8/3일 주일에는 중고등부의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그 날 오후 2-9시까지 모여서 중고등부가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토론하였습니다. 일년간 섬기게 되는 학생들은 자원으로 봉사하며 미션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려고 다짐했습니다.

8/9일 에는 매년 가는 Six Flag trip을 선생님4분과 학생 10명이 다녀왔습니다.

8/15-17에는 전교인 수양회에서 중고등부는 따로 수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 21명과 선생님들 7분이 2박3일 동안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8/31일에는 리더십 모임을 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를 1년 동안 섬겨줄 학생들은 Yeolim Jo, Ivey Choi, Lydia Yi, Angela Park, 그리고 Lucy Kim입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고등부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늘 더 많이 배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중고등부에 오셔서 많은 경험과 주님의 말씀을 나눠 주세요.



# 해바라기 주일학교

담당: 김수영 전도사

2014 VBS는 “Weird Love, It’s Amazing!”이라는 주제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77명의 어린이들과 51분의 교사 및 도우미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없는 신기하고 weird 한 동물들 (Axolotl, Leafy Sea Dragon, Star Nosed Mole, and Frilled Lizard)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모습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weird, but amazing한 사랑 이야기를 4일 동안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 저녁에는 교육 1부 위원장이신 김세철 장로님을 비롯해 학부모회 임원 어머니들,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였습니다. 당신을 곧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그리고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씻는 도우미들이나 씻음을 받은 어린이들이나 함께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랑과 기도를 먹고 우리 아이들은 쑥쑥 자라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2014-15 New School Year:

무더운 여름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보스턴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7명의 5학년 학생들이 주일학교 교과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의 양식만 먹고 자랄 수는 없지요. 매일 저녁 학부모회 어머니들께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정성스레 준비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은 맘을 뽄뽄 흘리며 맛있게 식사를 하고 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Youth Group 학생들이 보조 교사로 자원을 해 주었고, 등록과 안내, 사진촬영과 게임(탁구), 그리고 Talent Market 준비 등을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여름 성경학교는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의 손길과 기도의 응원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

그리고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의 ECC 채플 자리는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새학년이 되면서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도 바뀌었습니다.

- Toddler: 김미미 선생님,
- Nursery 1: 강모나, 박병진 선생님,
- Nursery 2: 정윤숙 선생님,
- Kindergarten: 박선희 선생님,
- 1학년: 김효인 선생님,
- 2학년: 권예림 선생님,
- 3학년: James Yi 선생님,
- 4학년: 최수정, 정인혜 선생님,
- 5학년: 김지원 선생님,
- 찬양팀: 신보경, 조민진, 엄순호 선생님,
- 총 디렉터: 진정원 선생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는 자리가 참 쉽지 않은 곳이지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이번 새학기에도 시간과 노력을 이 일에 쏟기로 자원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새학기에도 많은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부부 청년부-태상민 추모 1주년

## 예배 기도

- 최학수 집사

나를 지으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뉜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이땅 위에 저희를 보내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의 삶 속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을 평탄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오늘 한 형제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를 위해 모였습니다. (중략) 하지만, 저희가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이 소리를 아버지는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삶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그 뜻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저희는 이제 앓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광대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상민형제가 그 크신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하나의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그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가 남겨놓은 것들을 아버지 앞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중략)

상민형제는 저희에게 큰 보물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을 함께 하였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한 보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가요, 봉사자요, 선교자요,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사랑스런 아들이었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 곁에서 저희를 보고 있고, 저희 삶에 함께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생명과의 만남을 가슴 속에 기억하고.. 앞으로 저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고백하면서 살도록 도와 주세요. 또한 이를 통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생명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부부청년부에게 보내는 유나영 메시지

-2014년 8월 1일 부청 아린이 돌잔치 후에

부부청년부 식구들에게~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 해 주는 부청식구들 고맙고 고맙습니다. 어느덧 일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많이 힘들었던 시기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부청에서 함께 했지만 저어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천사같은 사람들을 만난 곳입니다. 아린이의 탄생을 함께 축하해 주고 기뻐해 준 부청식구들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선물과 영상을 보며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아린이를 생각하며 준비해 주신 손길을 생각하니 감사함에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한 분 한 분에게 보답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기도! 부청식구들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축복해 주시기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수필: 훌륭한 아버지는 가정교육의 기본이다

오연수 교수

## -고승덕 후보 사건을 바라보며

며칠 사이 인터넷 뉴스 포털을 뒤덮어 버린 서울시 교육감 고승덕 후보와 그의 따님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우리나라 가정교육과 사회 분위기에 대해 많은 걸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느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예로부터 자녀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자녀교육을 잘 한다는 것이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질 정도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이 부모의 행동과 실천보다는 물질을 통한 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특히 우리 아빠들은 자녀의 교육에 무관심하다. 사교육이 자녀의 접수를 향상시키고 상위권 대학을 보장하는 좋은 수단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상위권대학이 내 자녀의 인생도 상위권으로 올려줄까? 상위권대학과 많은 재산만이 자녀의 행복을 크게 해주는 수단은 분명 아닐 것이다.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대학과 사회적 지위 못지 않게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철학, 비전, 소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부모의 의무인 것이다.

## 훌륭한 아버지는 가정교육의 기본이다.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정신적 지주로서 다양한 역할수행의 대표자이다. 아버지는 사회와 가정을 연결시켜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통해 사회활동의 모델이 되는 등 자녀에게 중요한 대상이다.

해밀톤(Hamilton)이라는 아동 교육 전문가에 따르면 부성 질조 현상은 아이들의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가치관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가정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존재란 양육과 교육의 후원자나 보조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 사회적, 덕목(도덕성, 정의감, 절제, 인내, 윤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 요즘 아이들도 아버지의 훈계가 필요하다.

요즘 아버지들은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않지만 과거와는 달리 아이들을 훈계하는데 자신감을 잃고 있는 듯하다. 조금만 꾸짖어도 아이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반항적인 행동을 보인다. 심한 경우는 가출 등으로 아버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보니 무관심이 최선이라는 식의 탄식을 되풀이 하는 무기력한 아버지를 흔히 볼 수 있다.

## 따끔하고 설득력 있는 훈계가 없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린이 지도에 있어서 불확실한 부모의 태도와 관련된 훈육방법상의 문제라고 보고 싶다. 훈계가 잘못하면 훈계

받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공포와 분노로 찢쩍대기도 하고 심지어 고루하다 못해 지쳐버리기도 한다. 요즘 아이들에게 적절한 훈육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냐에 대해 과거와 비교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효과적인 아버지의 훈계방법

대개의 경우, 훈계를 하게 되는 경우란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나 어른들의 가치관에 벗어나는 사고나 행동을 보일 때 책망하는 형태로 하기가 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훈계라는 미명아래 비판적이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형태의 서투른 훈계는 아이들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격까지도 비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훈계의 진정한 의미는 아이들의 감정과 행동을 함께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훈계하는 당사자 자신이 이미 이성을 잃고 화가 난 상태에서 권위만을 내세운다고 하면 아이들의 감정 상태는 나쁘게 흔들리기 쉽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아이들을 향한 훈계는 어른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가치관이 아이들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 혹은 내면화 되게끔 유도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부모와 자식이 어떤 일을 놓고 공통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 공감의 유대관계는 효과적인 훈계를 가능하게 된다. 아이들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이러한 공감의 장면은 아버지의 진실 된 사랑의 언어로써 표현될 때 아이들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설득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 아이들에게 용납되는 행동의 한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은 용납되는 행동의 한계를 알았을 때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는 이러한 한계를 아이들 스스로가 구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많은 행동과 생각들을 어떠한 근거와 판단으로 허용과 불허용을 구분시켜 줄 수 있느냐에 있다. 바로 이 점은 각 가정교육의 기본 방침을 세워가는 아버지의 철학과 자녀 지도관이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는 아이들 지도에 어느 정도 의지와 지식을 가지고 일관된 자세로써 훌륭한 훈계를 할 수 있느냐에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 과거의 잘못까지 들어내는 것은 금물

자녀의 행동에는 허용이 중요하듯이 금지 또한 필요하다.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 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장

(Page 18에 계속)



#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43회 전국총회(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NCKPC) 제 43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가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창조적인 이민목회” 라는 주제로 6월 24일(화)부터 27일(금) 까지 메인 주 포트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 강사로 이학준 목사(Fuller 신학교 교수/윤리학), 여는 예배는 유승원목사, 아침 경건회는 엄순희 목사 와 김성제 목사, 그리고 닫는 예배는 이영길 목사께서는 은혜와 도전과 감동의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총회 한인목회부 김선배 목사께서 총회 소식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미국장로교(PCUSA) 221차 총회에서 통과된 동성결혼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미국장로교

(PCUSA)총회의 결정과 우리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인 장로교회들의 입장과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총회장은 이영길 목사(보스톤한인교회), 부총회장은 배현찬 목사(리치몬드 주예수교회), 평신도 부총회장은 조기현 장로(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남선교회 대표는 김영철 장로, 여성교회 대표는 김한나 집사, 감사 김길수 장로와 심순자 장로, 2세 사역 담당으로 김진성 목사, 협동총무는 이상현 목사(팔리한인장로교회), 서기 박성주 목사(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회계 채희철 장로, 사무총장 신정인 목사 등이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미국장로교(PCUSA) 총회의 결정과 우리의 입장

1)미국장로교 221차 총회는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간에 맺는 시민계약’ (헌법 W-4.9001) 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목사와 당회는 자신들의 양심과 믿음에 의해서 동성결혼을 집행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결정은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위의 총회는 헌법에 명시된 기존의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 결합으로 수정하자는 안건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수정안의 최종 결정은 1년 내에 171개 노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이번 결정의 중요한 점은, 목사와 당회는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긋난다고 확신할 때는 집례를 거부하고, 결혼식(건물사용 포함)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도, 강요 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 성명서(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NCKPC)는 금번 221차 교단총회가 내린 동성결혼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1.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결혼에 관한 전통과 이해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성서적인 개념이라고 믿는다.

2.우리는 미국의 여러 주 (현재 19개 주와 Washington DC) 에서 점차 합법화 되어가는 동성결혼이 분명히 비 성서적이라고 규정하며, 우리의 신앙양심에 따라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힌다.

3.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도 회개를 통하여 거듭난 새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4.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는 221차 교단총회가 결의하여 산하 노회에 수의한 동성결혼에 대한 개정안의 통과를 결연히 저지할 것이며, 산하 목사들과 교회들은 어떤 경우에도 동성결혼의 집례나 이를 위한 교회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4. 6. 24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총회장 유승원 목사(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부총회장 이영길 목사(보스톤한인교회)

#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BNI)를 시작합니다.

BNI 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BNI 설립에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스톤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출발한 BNI는 우리들이 이민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맡으로써 주십니다

- 첫째,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건강한 신앙 지도자를 육성한다
- 둘째, 선교지에서의 신학교육을 담당할 보스톤 지역 교수진을 육성한다.
- 셋째, 장기적으로 북한 개방을 대비하여 신학교육을 통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 넷째, 한인 이민교회와 이민사회에 균형 잡힌 미래세대 지도자를 양성한다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 첫 강의가 아래와 같이 9/16일(오후 7:30-10:00) 보스톤한인교회(Central) 와 17일(오후 7:30-10:00) 나사렛 사람의 교회(North)에서 시작합니다. 교과과정은 가을과 봄 각 두 학기씩 일 년 네 학기로 구성되고 한 수업은 5주 동안 진행됩니다. 매 학기 성서신학이 한 과목씩 개설될 것이며 그 외에 이민신학과 선교신학등, 평신도와 지역 교회를 돕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신학교육과정이 계속해서 제공될 것입니다. 2014년 가을 교과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가을 교과과정 안내

가을 I

요일	학사 기간	장소*	강의 제목	강사	강사 전공
월	9. 15 - 10. 20 (5주)	Central	선교 큰 그림 그리기	김건철 목사	BU PhD. candidate
화	9. 16 - 10. 14 (5주)	North	구약 꿰뚫기	권오진 목사	Harvard PhD. candidate

가을II

요일	학사 기간	장소*	강의 제목	강사	강사 전공
월	10. 27 - 11. 24 (5주)	Central	예수님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장계은 목사	BU PhD, 신약
화	10. 21 - 11. 18 (5주)	North	기독교 예배의 어제, 오늘, 내일	최형락 목사	BC PhD, 교육

기타 자세한 수강신청 안내는 BNI 홈페이지 [www.bosni.org](http://www.bosni.org) 을 참조하십시오

교회 내는 김건철 목사([purebuilder@hotmail.com](mailto:purebuilder@hotmail.com)), 권복태 장로 (781-408-9430, [boktaekwan@gmail.com](mailto:boktaekwan@gmail.com)), 망경남 집사 (917-922-2239, [bangkim60@gmail.com](mailto:bangkim60@gmail.com)) 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Page 16에서 계속)** 차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행동의 허용과 불허용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미리 덜어주는 데 있다. 또한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태도와 그 처리과정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아이들에 대한 제한이나 훈계가 과거의 잘못까지 끄집어내 가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어떤 특정한 행동 그 자체에 대한 제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한하고자 하는 행동에는 단호한 어른들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하면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제한과 훈계는 어른의 느낌이

아주 분명하면서도 말 자체가 온건하고 위엄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대개의 아이들은 쉽게 순응하게 된다. 아이들이 어떤 규칙 등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 규칙을 장황하게 잔소리조로 되풀이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약점이나 잡히게 된다. 의연한 태도와 엄격하면서도 포근한 훈계를 통해 아버지의 진정한 애정표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의 결말부를 인용하고자 한다.

“사랑하는 마누엘 발라다리스 씨,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Page 19에 계속)**

# 새교우 환영반

윤미자 집사

교인위원회에서는 2014. 6월 새교우 환영반을 오픈하여 1일, 8일, 15일 3주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첫째 주는 자기 소개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둘째 주는 ‘말씀과 함께’ 성경공부 교재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셋째 주는 우리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해있는 교단(PCUSA)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새교우 환영반에는 노시일/김미희, 이해영/이원기, 박인경/김준범, 설재훈/이현정, 오연수 가정이 함께 하셨습니다. 3주 교육 마친 후,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넓은 뒷뜰에서 야외 소풍 나온 기분으로 맘껏 담소 나누며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장소와 음식을 제공해 주신 조준호/김한나 장로님 가정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시일/김미희** 가정은 북서2구역 소속이고, 신지 10학년, 신결 8학년, 신영 4학년으로 1남 2녀의 세 자녀가 있습니다. 렉싱턴에 거주하시고 Juniper Network에서 Product Manag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해영/이원기** 가정은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그대로..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부부청년부 소속입니다.

**박인경/김준범** 가정은 두 분 다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시다 연구차 보스톤에 오셨고 MGH에 계십니다. 자녀로는 10개월 된 아들 준이가 있으며 부부청년부 소속입니다.

**설재훈/이현정** 가정은 중앙4구역 소속이며 자녀로 딸 한나 Kinder가 있습니다. 현재 Harvard Medical School Postdoc 입니다.

**오연수** 교우는 중서2구역 소속이며 상담심리 전공 하셨습니다. 5학년 된 아들 경빈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새교우 환영반을 통해 보스톤한인 교회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로서 저는 마흔여덟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억을 회상하다 보면 때론 어린 시절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제게 딱지와 구슬을 주신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뽀르뚜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도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요즘도 전 가끔 아이들에게 딱지와 구슬을 나누어 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인생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저는 제 자신의 사랑에 만족합니다.

그 시절, 우리들의 그 시절엔 저는 몰랐습니다. 먼 옛날 깨끗한 마음의 어린 왕자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제단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사랑하는 뽀르뚜가, 저도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히!

주인공 ‘제제’는 브라질 리우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부모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 받으며 자랐던 아이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사랑해주었던 뽀르뚜가(마누엘 발라다리스)를 만나면서 그의 성격도 인생도 변한다. 이제 48세의 어른이 된 제제가 기차사고로 죽은 뽀르뚜가를 그리움에 회상하며 말하는 대목이다. 고승덕 후보는 밥 먹는 시간 중 젓가락질할 시간도 아까워 항상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성공을 추구했지만 정작 딸에게 전화하고 생일선물을 주는 것 같은 작은 일들을 챙길 시간조차 없었던 무관심한 아버지였다. 만일 고승덕 후보가 어린 딸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는 아버지였다면 딸이 자신의 출세를 막는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 KCB 갤러리 나누고 싶은 모습들



도미니카 단기선교단



제직수양회-안맹호 목사



어머니주일 찬양제



어머니주일 집사회



서내산 산행



43회 NCKPC 총회



2014년 전교인 여름수양회



안수 및 임직자